

4 하루 일과

Chapter

엿 5:15~21, 뵤전 4:7~14
찬양 18장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 69장 (맑고 밝은 날)

오늘 배울



말씀

1.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함을 압니다.
2. 하루 일과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고 동행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마음 열기



1. 위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기록해 보세요.
2. 이번 주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말씀을 이해하기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시간, 재물, 재능, 환경까지 모두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것처럼 여기며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 중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씩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매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소중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이 영원한 세상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일매일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가운데 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하나 바뀌어 나갈 때,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며,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활 가운데 TV를 보거나 게임, 음악, 인터넷, 쇼핑 등을 하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학생의 위치에서 공부하는 시간, 부모님을 섬기는 시간, 교우 관계를 위한 시간과 신앙생활을 위한 시간, 영혼을 건지기 위한 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일상을 재구성한다면 어떤 일정표가 나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가운데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5~16)

See then that you walk circumspectly, not as fools but as wise,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Eph 5:15~16)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약 4:13~17)

(시 90:1~12)

(벧전 4:7~11)

2. 나의 하루 일과 중 낭비되는 시간은 없는지 찾아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적어 보세요.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현재 내가 자주 하고 있지만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2. 현재 자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일 시작한다면 주님께 영광이 될 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3.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할 생각이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1번의 일을 그만 두고 2번의 일을 시작 하는데 있어서 내게 가장 방해가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 보고, 매일매일을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드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앗! 정말요?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할 수 있는 30년(10,950일) 중

잠



3,536일

식사시간



707일

공부



836일

잡담



973일

TV시청



776일

전화



692일

남에 관한 평론



441일

빈둥 빈둥



197일

남은 날은? 단 2,792일 뿐!

1,440만원

어느 날 한 사람이 은행에서 걸려온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 앞으로 1440만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이 돈을 다 쓰셔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익하게 쓰십시오.”

이 사람은 어리둥절한 채로 하루를 보내는 바람에 1440만원을 찾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앞으로 1440만원이 또 입금되었습니다. 어제 예금된 돈은 쓰지 않아서 그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오늘 입금된 돈을 당신이 찾아 쓰시면 그 돈은 당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는 조금 미심쩍어 하면서도 은행으로 갔고, 그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에이, 기분이나 한번 내 보자!”하며 마구 써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도 또 같은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돈을 인출하여 마구 썼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돈을 쓰던 사람의 마음속에 점점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딱 멈추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24시간을 분(分)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40만원은 안 주셨지만 1440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시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지금까지 맡겨둔 것을 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하자.”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